2023년 12월 31일. December 31, 2023
금문교회 송년주일 예배. GGPC Year-Sending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 I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2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and exhort, with complete patience and teaching.
디모데후서 4:1-2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2023년 마지막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사랑, 기쁨과 감사가 더욱 더 크고 높았음을 고백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전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슬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속히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악한 영의 지원을 받는 불신세력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세우는 새로운 교회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말세지말을 당한 이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핍박이 거셀수록 더욱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사도행전 Acts 21:1-16

1.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And when we had parted from them and set sail, we came by a straight course to Cos, and the next day to Rhodes, and from there to Patara.

2.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And having found a ship crossing to Phoenicia, we went aboard and set sail.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When we had come in sight of Cyprus, leaving it on the left we sailed to Syria and landed at Tyre, for there the ship was to unload its cargo.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And having sought out the disciples, we stayed there for seven days. And through the Spirit they were telling Paul not to go on to Jerusalem.

5.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When our days there were ended, we departed and went on our journey, and they all, with wives and children, accompanied us until we were outside the city. And kneeling down on the beach, we prayed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and said farewell to one another. Then we went on board the ship, and they returned home.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When we had finished the voyage from Tyre, we arrived at Ptolemais, and we greeted the brothers[b] and stayed with them for one day.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On the next day we departed and came to Caesarea, and we entered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who was one of the seven, and stayed with him.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He had four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가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While we were staying for many days, a prophet named Agabus came down from Judea.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And coming to us, he took Paul's belt and bound his own feet and hands and said, "Thus says the Holy Spirit, 'This is how the Jews[c] at Jerusalem will bind the man who owns this belt and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When we heard this, we and the people there urged him not to go up to Jerusalem.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Then Paul answered, "What are you doing,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For I am ready not only to be imprisoned but even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And since he would not be persuaded, we ceased and said,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15.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After these days we got ready and went up to Jerusalem.

16. 가이샤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And some of the disciples from Caesarea went with us, bringing us to the house of Mnason of Cyprus, an early disciple, with whom we should lodge.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그는 평생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대로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가장 소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을 그립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님께서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을 예고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현지인들과 함께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던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1.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And when we had parted from them and set sail, we came by a straight course to Cos, and the next day to Rhodes, and from there to Patara.

바울 일행이 지금 움직이는 동선(foot traffic)은 에게해(Aegean Sea) 동쪽 해변 길의 남쪽방향(south direction)입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밀레도(Miletus)에서 만났다가 작별하고, 일행과 함께 "고스"(Cos)로 갔습니다.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로도"(Rhodes)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바다라"(Patara)로 갔습니다.

넓은 지중해에 열려 있는 "바다라"(Patara)는 거대한 상업도시였습니다.

2.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And having found a ship crossing to Phoenicia, we went aboard and set sail.

바다라에서 베니게(Phoenicia)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베니게는 이스라엘 북쪽

해변지역입니다. 바다라에서 베니게. 굉장히 먼 거리를 직항(non-stop sailing)하는 것입니다.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When we had come in sight of Cyprus, leaving it on the left we sailed to Syria and landed at Tyre, for there the ship was to unload its cargo.

그들은 구브로(Cyprus)를 왼쪽에 두고 항해(sailing)했습니다. 이어서 수리아(Syria) 쪽으로 항해(sailing)했습니다. 그들은 두로(Tyre)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습니다(unloaded its cargo).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And having sought out the disciples, we stayed there for seven days. And through the Spirit they were telling Paul not to go on to Jerusalem.

두로(Tyre)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한 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Do not go on to Jerusalem!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선"이 생깁니다. 같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지시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당부가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성령님은 혼선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모든 그의 제자들에게도 한결같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응답이 달랐을 뿐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핍박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When our days there were ended, we departed and went on our journey, and they all, with wives and children, accompanied us until we were outside the city. And kneeling down on the beach, we prayed

두로(Tyre)에서 한 주일을 지낸 바울 일행이 떠납니다.

두로의 형제들이 그 아내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습니다.

모두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밀레도에서 했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and said farewell to one another. Then we went on board the ship, and they returned home.

작별 후에 바울 일행은 배에 올랐습니다. 두로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When we had finished the voyage from Tyre, we arrived at Ptolemais, and we greeted the brothers[b] and stayed with them for one day.

두로(Tyre)에서 떠나, 이제는 남쪽의 항구도시(southern port city) 돌레마이(Ptolemais)에 이르렀습니다. "악고"(Accho)라고도 불렀습니다. 두로(Tyre)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On the next day we departed and came to Caesarea, and we entered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who was one of the seven, and stayed with him.

바울 일행은 이튿날 가이사랴(Caesarea)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일행의 여정은 그 최종 목적지, 곧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He had four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 처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가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While we were staying for many days, a prophet named Agabus came down from Judea.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Agabus)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And coming to us, he took Paul's belt and bound his own feet and hands and said, "Thus says the Holy Spirit, 'This is how the Jews[c] at Jerusalem will bind the man who owns this belt and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띠 임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 띠 임자가 이처럼 묶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방적 진로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When we heard this, we and the people there urged him not to go up to Jerusalem.

바울 일행이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현지, 곧 가이사랴 지역 사람들과 합세하여 바울에게 권면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기 "우리"에 포함하는 일행 중에 "누가"(Luke)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Then Paul answered, "What are you doing,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For I am ready not only to be imprisoned but even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권면을 물리치셨습니다.

>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hindrance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 마태복음 Matthew 16:23b

그처럼 바울도 모든 사람들의 권면을 물리쳤습니다.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And since he would not be persuaded, we ceased and said,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예루살렘 상경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15.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After these days we got ready and went up to Jerusalem.

이제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6. 가이샤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And some of the disciples from Caesarea went with us, bringing us to the house of Mnason of Cyprus, an early disciple, with whom we should lodge.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가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브로 출신 나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손을 "한 오랜 제자"로 불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손이 예루살렘교회 오순절 성령세례 받은 120명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내 생각에 적어도 "바울"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제자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작별하고 에게해 동쪽 연안을 따라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고 사역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길이라면, 필경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 마태복음 Matthew 16:25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땅에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 마태복음 Matthew 28:20

순교를 앞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 1. I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 2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and exhort, with complete patience and teaching.
> 디모데후서 4:1-2

우리는 누구나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옥중의 바울처럼, 매일을 마지막 날로 여기고 살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 헌신의 결정판은 "말씀증거"입니다.

2023년을 마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해 2024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날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 날, 2024년의 새벽을 향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새로운 해, 2024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와 늘 함께 하옵소서. 또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